

Ⅲ. 복수사용자제도의 영향

1.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 증대

- 복수사용자제도는 ‘가입 및 운용관리 수수료 등의 비용감소’ 및 ‘규약프로세스 작업감축 등의 편의성’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.
- 첫째, 수수료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, 즉 단일사용자제도보다 저렴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입 유인책이 될 것임.

<표 6> 일본의 단일사용자제도와 복수사용자제도의 수수료 비교

구분	단일사용자 제도	복수사용자 제도(종합형)	비고
연간관리비 (관리비·신탁수수료 등)	549,570엔	277,200엔	49.5% 절감

주 : 가입자 50명 이상 대상이며, 교육비 등은 제외
자료 : 富局生命, <http://www.fukoku-life.co.jp>

- 둘째, 복수사용자제도는 대표사업장과 금융회사 간에 체결한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마련·제시한 규약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가입이 증대될 것임.
- 셋째,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유인이 강화됨.

2. DC형 퇴직연금시장의 비중 증대

- 복수사용자제도가 DC형 퇴직연금에 우선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향후 기업의 DC형 퇴직연금의 가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퇴직연금시장의 점유율확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복수사용자시장에 적극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동 제도의 시행과 함께 DC형 퇴직연금의 성장이 예상됨.
- 일본의 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단일사용자제도보다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 기업수(62%)가 많고 적립금 규모(58%)도 크며(2007년 기준), 홍콩의 MPF의 경우 복수사용자제도의 자산규모 비율이 97%에 이룸(2009년 3월 기준).

<표 7> 일본의 DC형 퇴직연금 가입 형태

(단위: 개, 억 엔, %)

구분		단일사용자제도	복수사용자제도		합계
			연합형	종합형	
사업장 수 (비율)	2006년	2,752 (38%)	2,586 (35%)	1,960 (27%)	7,298 (100%)
	2007년 ¹⁾	3,396 (38%)	2,228 (25%)	3,238 (37%)	8,862 (100%)
자산(2007년) (비율)		150,900 (42%)	123,500 (34%)	88,600 (24%)	363,000 (100%)

주 : 1) 2007년 5월 기준 자료임.

자료 : 厚生労働省, 「複数の事業主で実施する企業型年金規約について」, 『確定拠出年金連絡會議資料(第6回)』, 2007 박준범, 『일본 퇴직연금 복수형제도 현황』, The Pension Advisor, 삼성생명, 2008.12

- 일본의 경우 복수사용자제도가 DB와 DC형 퇴직연금에 도입되

어 있는 반면, 우리나라는 복수사용자제도가 DC형 퇴직연금에만 도입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- 복수사용자제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DB보다는 DC형 퇴직연금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음.

<표 8> 회사 규모별 계약현황(2009년 12월)

(단위 : 건, %)

기업규모	DB형		DC형		IRA기업형		계	
	건수	비중1)	건수	비중1)	건수	비중1)	건수	비중2)
대기업 (300인이상)	1,067	75.4	349	24.6	-	0.0	1,416	2.0
중기업 (300인미만~ 20인초과)	9,902	56.7	7,559	43.3	-	0.0	17,461	24.8
소기업 (20인이하)	12,004	23.3	18,428	35.7	21,192	41.0	51,624	73.2
계	22,973	32.6	26,336	37.3	21,192	30.1	70,501	100.0

주 : 1) 총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발생 가능
 2) 운용관리계약 기준이며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중복계약 2,868건이 포함된 수치
 3) 비중1)은 기업규모내에서의 비중, 비중2)는 기업규모별 비중
 자료 : 금융감독원, 『퇴직연금 영업실적』, 2010.1

□ 최근 타 금융권이 DC형 퇴직연금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타 금융권의 시장확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.

○ 2006년 이후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를 보면 DC형 퇴직연금시장이 은행 및 증권사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현저해질 가능성이 높음.

○ 또한, DC형 퇴직연금은 예정이율 및 사망률 등의 계산기초율을

감안하지 않고 설계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의 상대적 우위를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임.

<표 9> 금융권역별 DC형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추이

구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
은행	57.5%	53.7%	56.8%	58.7%
생보	18.7%	19.4%	17.1%	14.3%
손보	3.2%	4.4%	4.3%	4.6%
증권	20.6%	22.5%	21.9%	22.4%

자료 : 금융감독원, 『퇴직연금 영업실적』, 각년도

3. 대표사용자형 제도 위주의 가입확대(단기)

- 단기적으로는 DC형 퇴직연금 중에서 표준형보다는 협회·조합·단체 등이 추진하는 대표사용자형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.
 - 복수사용자제도 중에서도 표준형의 경우 제도도입 등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,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표사용자형 제도의 확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.
-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표사용자형과 표준형 제도에 가입하는 성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.
 - 대기업 그룹의 경우에는 기업들 간에 결속력이 강하여 대표사용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.
 - 대기업 그룹의 경우 자연스럽게 일본의 연합형 형태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, 그룹사간 이직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등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선호가 높

을 것으로 판단됨.

- 근로자 50인 정도의 중소기업은 주로 대표사용자형 중에서도 종합형 제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이하 규모의 기업은 표준형 제도를 선호할 것임.
- 표준형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규약을 제시하는 형태이므로 협상력과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기업의 선호도가 높을 것임.

<표 10> 회사 규모별 복수사용자제도 가입형태

구분	대표사용자형	표준형
대기업	○	×
중소기업	○	△
영세기업	×	○

주 : ○, △, ×는 각각 가입 유인이 강함, 중간, 약함을 의미함.

4. 이익상충문제의 심화 가능성

- 대표사용자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권간의 과당경쟁 및 대표사용자의 이해상충 발생 등 시장질서가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복수사용자제도는 가입집단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시장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출혈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.
- 복수사용자제도는 자산운용 지시를 개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는 DC형 퇴직연금에만 도입되어 대표사용자의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대표사용자가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.
- 특히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표사용

자형 퇴직연금에 동시 가입하는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대표사용자의 권한행사력도 증가할 것임.

- 대표사용자와 참가 기업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대리인 문제(Principal-agent Problem)의 개연성이 있으며, 불순하거나 비도덕적인 대표사용자의 악의적 권한행사⁷⁾에 대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7) 예컨대 참여기업에서 각출된 기여금을 대표사용자가 연금사업자에게 고의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횡령할 가능성,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참여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선정할 개연성, 금융회사와 퇴직연금제도 가입과 관련하여 대표사용자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할 가능성 등이 있다.